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서울시와 의회와의 예산 건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다분히 정략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사태는 지난 서울시의 정책에서 보듯 화려한 치장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진작 아이들 밥만 먹여주는 데는 인색한, 빈곤한 사고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작금 이 문제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정책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은 교육 재정을 잠식해 교육여건의 악화를 가져오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국고급식은 뒤로 미루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 제공과 낙후 시설 개선 등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나름 이유 있는 설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마

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균형감 있는 시각이 아니다. 부자집 아이나 가난한집 아이 모두 사회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미래의 희망이며 자산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밥 먹게 해서야 될 말인가. 밥 한 끼 정도야 차별 없이 먹여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덕목이다.

서울시 1년 예산이 대략 20조 원에 이른다. 올해만 해도 한강운하사업으로 766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고, 해외 마케팅에도 154억 원이나 쓸 계획이다.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이 조 단위쯤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7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 수준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을까.

서울시가 민선4기 빚을 내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 원 가량의 채무가 증가했다고 한다. 1조 원의 1년 이자비용을 3%로만 봐도 매년 이자만 1200억 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된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설명도 없으면서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700억 원이 증가되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난리다. 반포인공분수 설치나 서해벚길사업 등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을까.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으로 서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무상급식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면 지금 초·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도 폐지되어야 한다. 시장의 '3무(無)학 교' 사업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해야 맞다. 물론 내면에 깔린 정치적 이해득실을 간과해서가 아니다. 무상급식을 인정하면 오세훈표 사업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시장은 4년간 특화된 프로그램 없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평가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도 서울시민이 위임한 행정권이지만 서울시의회도 시민이 투표로 선출한 견제기관이다. 서울시 교육감도 시민의 직선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리다. 이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솔직히 지난 선거 때 서울시민이 지금의 구조로 선택했을 때는 정

책에서는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인물로서는 한 번쯤 더 기회를 줘보는 것이 좋겠다는 민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시장은 아직도 시의회와의 시정협약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대화도 타협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자신이 공약했던 준비물 없는 학교는 되고, 무상급식은 왜 안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변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도 문제이다. 세간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야 하는데 오로지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적하고 싶다. 시장 역시 세련된 정치적 판단이 매우 미숙해 보인다.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묘책을 찾길 기대해 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시민들은 분명히 표를 댔었다. 아이들의 건강을 대한민국의 미래다. 차별 없이 좋은 음식을 먹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시민의 의무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사설

정부, 계속 이럴텐가

12월 22일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가 높은 문화발에 깃뚫혔다. 라이트 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녹색국민연합 등 친정부 관변단체 소속 50~60대 남성 20명이 동지법회가 열리는 조계사에 난입해 신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들은 확성기를 들고 조계종과 스님들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백주대낮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한국불교총본산에서 벌어진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범여사 화재 발생 후 1주일 이 지나도록 CCTV에 찍힌 인물을 그들은 확성기를 들고 조계종과 스님들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백주대낮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한국불교총본산에서 벌어진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범여사 화재 발생 후 1주일 이 지나도록 CCTV에 찍힌 인물을 그들은 확성기를 들고 조계종과 스님들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백주대낮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한국불교총본산에서 벌어진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초·금정경찰서는 공조수사까지 펼쳤으나 결국 스님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경찰은 고인이 된 스님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불교계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내부 소행으로 몰아 사건을 축소하려는 지시를 받았거나 과잉충성을 위해 스스로 벌인 일"이라며 정부·여당에 이어 경찰까지 성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불교계가 무엇을 어찌 했길래 이리 하는가. 불교계는 정부를 상대로 그 어떤 물리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 오직 참회 정진만 해 왔다.

정부는 더 이상 불교계를 자극하지 말라. 권력은 유한해도 국민은 무한하다. 고작 2년 뒤 후회할 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선사, 신학자 만남에 거는 기대 크다

불교-기독교간 평화의 대회가 12월 31일~신년 1월 5일 대구 동화사 등지에서 열린다.

행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의 한 분인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조실)과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교 폴 니터 교수의 법문과 특강, 대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폴 니터 교수는 실제적인 종교간 대화에도 깊이 참여해 온 종교대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달라이 라마 등과 평화평화국국제위원회 이사로 활동해 온 니터 교수는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해 온 친불교 성향의 신학자이다. 달라이 라마는 그런 그에게 '연꽃 치유자(Lotus Healer)'라는 별명을 내리기도 했다.

폴 니터 교수의 활동과 업적 외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결혼생활이다. 신학자 폴 니터 교수의 아내 캐서린 코넬 여사는 불자이다. 코넬 여사는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로 불교 명상 수행을 사회운동과 치유활동에 접목해 실천해 왔다. 세계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폴 니터 교수 부부의 삶에 주목해 왔다. 한 울타리 안에서 불교-개신교가 공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종교를 초월해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내자는 간절한 사회 통합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유일신 교리에 앞뒤 딱딱한 논란을 일으켜 온 개신교인에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도리를 깨쳐줄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세상 사람들은 고즈넉한 산사를 그리지만, 실제로 주지 스님 이하 사찰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르다. 많은 신자 혹은 사람들이 절에 오는 것을 원한다. 밖에서 펼쳐지는 야단법석이든 실내에서 개최되는 법회든 기꺼이 준비한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무차대회 단어가 등장한다. 막힘없다는 무차(無遮)는 '열린' 법회를 말한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법회에 참석해 큰 스님의 법문과 함께 한바탕 어우러지는 행사를 실감했을 것이다. 오늘날 고찰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들은 거대한 괴물을 걸며 펼쳐졌던 그 옛날 법석의 역동성을 남기고 있다.

누구나 세속과 격리된 산중에 선찰이 있어야 한다지만, 포교사들은 불교의 역동성을 위해 도심 법당 불사를 외친다. 가부좌를 한 수행자가 고요하게 응시하지만, 내적 사유는 오히려 맑고 환한 상태에서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을 준비한다. 선

자들은 불일보조 선사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힘찬 전진을 의미하는 성성(惺惺)을 말한다. 좌선은 고요한 가운데 힘찬 모습으로 다가와야 한다. 선정(禪)은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상과 사물들을 관조한다. 정(定)은 자신을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선정 상태가 이어지면 삼매이며, 삼매는 많은 공덕을 가져온다. 그래서 선을 공덕총립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필자는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에서 활동한다. 주로 잠실운동장 대회에서 강변으로 월드컵 공원에서 한강 줄기를 따라서 뛰곤 한다. 5년 전 입적한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께서 휘호를 주셨다. '주선일미(走禪一味)'이다. 스님은 "달리는 역동성과 선의 역동성은 같다면 체육인 포교에 정진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덕분에 우리 동호인들은 유니폼에 주선일미를 새겨 넣고 달린다. 뛰는 발에 맞추어 <반야심경>과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을 외우다 보면 어느덧 끝인 지점이다. 함께 달리던 '달림이'들이 주선일미의 뜻을 물어다.

이 때 선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활발발지(活潑潑地)가 떠오른다. 임제 스님의 일갈

임동에 필요한 활발발

이다. 중국 당나라 때 활동했던 임제 스님의 이 한마디는 많은 선자들이 즐겨 사용한다. 물고기가 펄떡펄떡 물을 차고 뛰어오르는 힘찬 도약을 뜻한다. 어떤 책에는 발(撥)자 혹은 발(撥)이라 하는데, 모두 물고기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가리킨다. 또 있다. 보리살타는 걸림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어긋남이 없어 힘차게 나아가는다는 메시지이다. 아마타불이 48원을 세우고 성불하는 그 불도에 지옥 중생은 물론 야귀와 축생이 없도록 제도한다는 원력을 나타낸다. 지장보살의 지옥 비구이 서연도 역동이다. 관세음보살이 고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도 다를 수 없다. 더 나아

가 우리 자신을 아마타불과 지장보살의 서원에 대입시킨다면 힘차게 나아가는 신행자 아니겠는가.

그러나 힘찬 전진 앞에 조건이 붙는다. 불타의 가르침을 정녕 알고 있는가, 알려고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선정을 이해하고 경행해 보았는가를 묻는다. 선정은 무념무상의 아무 생각 없거나 단순한 정신을 집중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空)을 비웠다고 하거나, 무(無)를 앓거나 아니라는 부정의 뜻이 아니다. 공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충전이며, 계기를 만들며, 발상의 전환이다. 불타의 가르침은 결코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피하는 염세주의자 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적극 참여하고 알아보고 실천하는 보살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임동의 추운 겨울이다. 기운이 하강하면 신체가 움츠러들고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세상의 움직임을 내 뜻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활발발의 선정이 필요하다. 서원이 필요하다. 힘찬 출발은 밝게 비추어 보라는 것이다. 임제 선사가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인하라며 회공반조의 할을 크게 외쳤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는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지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지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